

간몬 해협

간몬 해협은 혼슈와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처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로입니다. 수 세기 동안 이 해협은 한국 동해·일본해와 세토 내해를 이어주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였습니다. 해협의 길이는 약 15 해리, 깊이는 12m 로 가장 좁은 곳에서는 항행 가능한 폭이 불과 0.5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S 자 형태로 구불구불한 데다 좁고 시야도 나쁘며 위험한 암초도 있기 때문에 항행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류의 속도는 최대 11 노트(초속 5.56m)나 됩니다.

간몬 해협은 지리적으로는 비교적 작은 해협이지만,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큰 존재입니다. 수 세기에 걸쳐 이 항로를 성인, 스파이,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해전과 정치적인 변혁, 그리고 천황의 비극적인 죽음도 있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아나토(穴門)’, ‘바칸(馬關)’, ‘시모노세키(下関)’ 등 여러 이름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간몬 해협의 형성

간몬 해협은 약 6,000년 전에 혼슈와 규슈가 분리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화에 따르면 간몬 해협은 3 세기 초 진구 황후가 규슈의 선주민족 구마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남하했을 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진구 황후는 여행 도중 아나토라고 불리는 동굴에 들렀는데, 그 동굴이 기적처럼 두 개로 갈라졌고 대지가 갈라진 커다란 틈이 해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노우라의 비극

12 세기 말 일본에서는 ‘헤이케’와 ‘겐지’라는 무사 일족이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겐페이 전쟁(1180~1185)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간몬 해협 연안에서 일어난 ‘단노우라 전투’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패배를 깨달은 헤이케의 무사들은 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불명예라고 생각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헤이케의 군에 끌려간 8 세의 안토쿠 천황(1178~1185)은 조모인 니이노아마(1126~1185)의 품에 안겨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 시대의 간몬 해협

무로마치 시대(1336~1573) 동안 중국 명나라(1368~1644)로 향하는 사신들의 배가 간몬 해협을 통과해 모지에 상륙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당시 모지는 교역항으로 인가를 받아 북부 규슈의 유력한 무장이었던 오우치 가문이 항구를 통괄하고 있었습니다. 1550년에는 예수회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1506~1552)가 포교를 위해 교토로 향하던 길에 시모노세키에 상륙했습니다. 교토에서 불교도들에게 크게 거절당한 뒤 그와 그의 지지자들은 현재의 야마구치현에 해당하는 곳으로 돌아와 기독교를 전파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592년 일본의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가 오사카로 향하는 항해 도중에 이 해협에서 조난당했습니다. 그의 배는 암초가 가장 위험한 간조 때 해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하여 서두르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배를 더 몰고 나가다 배가 좌초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배에 구조되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간몬 해협에 떠 있는 간류지마 섬에서 유명한 검술의 달인 미야모토 무사시(1584~1645)와 사사키 고지로(1575~1612)가 대결했습니다(간류지마 섬의 결투). 에도 시대(1603~1867) 동안 시모노세키는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에서 간몬 해협을 지나 오사카로 다시마와 청어 등을 운반하는 배가 기항하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시모노세키 전쟁

1853년 7월 8일에 미국 사절 매슈 페리 제독이 일본에 내항한 이후 서일본에서는 배외적이고 반막부적인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1863년 6월 25일 간몬 해협을 지나가고 있던 미국 증기선 SS 펄브로크호를 조슈번이 포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되었고, 구미 제국과 조슈번의 전쟁인 시모노세키 전쟁(1863~1864)을 야기했습니다. 이듬해 5월,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함대가 간몬 해협에 침입했으며 조슈군은 완패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적극적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지 항구 붐과 현대의 간몬 해협

영일통상항해조약이 1858년 발효되면서 1858년의 헤리스 조약(미일수호통상조약)으로 시작된 불공평한 제한 무역 방침에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모지는 본격적인 국제항이 되었고, 간몬 해협은 석탄, 쌀, 밀, 밀가루, 유황 등 일본의 급성장하는 국제 무역에 필수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1902 년 러시아가 동청 철도를 완성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다렌의 뤼순 항구가 연결되자 모지는 다시 번영했습니다. 1896 년까지 모지 항구는 1,000 척 이상의 외국 선박을 수용했고, 이는 일본 내 항구 중 다섯 번째로 큰 숫자였습니다. 이 배들의 대부분은 동아시아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던 지쿠호(규슈)의 석탄을 매입하러 왔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1939~1945) 미국은 일본 물류의 마비를 노리는 ‘기아 작전’으로 간몬 해협 주변에 대량의 기뢰를 투하했습니다. 간몬 해협은 일본 해운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미군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상의 기뢰원은 석유, 철, 식량의 수입을 크게 방해하고, 전시 배급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현재는 현지 선박과 페리, 아시아·북미·호주의 주요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을 포함해 매일 약 600 척의 선박이 간몬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해류가 여전히 거세 혼란을 받은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으면 1 만 톤 이상의 선박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